

‘득점 머신’ 호날두 12시즌 연속 20골

세리에A 득점 선두 질주...정규리그 통산 600경기 출장도



3일 열린 세리에A 유벤투스와 스페치아 경기에서 호날두가 리그 20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득점 머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올 시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20호 골을 쏘아 올렸다.

호날두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치아와 2020-2021 세리에A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44분 쐐기 골을 터트리며 유벤투스의 3-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승리로 3위 유벤투스는 선두 인터 밀란(승점 56)을 승점 7차로 압박하며 역전 우승의 희망을 이어갔다.

정규리그 3경기 연속골(4골)을 터트린 호날두는 다양한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시즌 세리에A ‘20호골 고지’에 도달한 호날두는 득점 2위 로멜루 루카쿠(인터 밀란·18골)와 격차를 2골로 벌리며 득점 선두를 내달렸다.

호날두는 역대 정규리그에서 12시즌 연속 20골 이상 터트리는 무서운 득점력을 과시했다.

2009-2010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규리그

29경기 동안 26골을 넣은 호날두는 이후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무대에서 20골 이상씩 작성했다.

또 이날 경기는 호날두의 역대 프로 통산 정규리그 600경기(포르투갈 2부 2경기·프리메이라리가 1부 25경기·프리메이라가 2부 2경기·프리미어리그 196경기·세리에A 85경기)째였다.

유벤투스는 스페치아를 상대로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지만 후반에 3골을 몰아치는 집중력을 과시했다.

후반 17분 알바로 모라타의 결승 골이 터진 유벤투스는 후반 26분 페데리코 키에사가 추가 골을 넣으며 승리를 예감했다.

키에사는 자신의 첫 번째 원발슛이 골키퍼에 막혀 튀어나오자 재빨리 오른쪽 발리슛으로 기어코 득점에 성공했다.

호날두는 후반 44분 페넬티아크 정면에서 로드리고 벤타쿠르의 침투패스를 받아 원발슛으로 쐐기 골을 꽂았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김현욱 1라운드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김현욱(사진)이 2021시즌 1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K리그2 개막전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전남 김현욱은 미드필더 부문에서 장운호(서울이랜드), 에디뉴(대전), 까노뚜(안산)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현욱은 지난 27일 안방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개막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수를 조율했다. 전남은 골 운이 따르지 않아 승리는 놓쳤지만 0-0 무승부를 기록, 승점 1점을 챙겼다.

한편 1라운드 MVP에는 서울이랜드 장운호가 선정됐다.

장운호는 부산아이파크와의 개막전에서 팀의 첫 골을 기록하며 3-0 대승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서울이랜드는 2015년 창단 후 첫 개막전 승리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온 힘을 다해...봄을 달린다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대회가 3일 강진종합경기장, 성전산업단지 구간 등지에서 개막했다. 이 대회에는 250명의 엘리트 선수와 6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으며 7일까지 개인도로·크리테리움·동호인 대회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강진군 제공>

스키 강영서, FIS 여자 회전 준우승

한국여자선수 유럽대회 첫 입상

강영서(24·부산시체육회)가 국제스키연맹(FIS) 레이스 오스트리아 대회 여자 회전 경기에서 준우승했다.

강영서는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인근 오베르페르투스에서 열린 2020-2021 FIS 레이스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19초 96으로 출전 선수 83명 중 2위를 차지했다.

1분 19초 79로 우승한 빅토리아 올리비에(오스트리아)와는 0.17초 차이가 났다.

강영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전 47위

에 오른 선수다.

FIS 레이스는 월드컵이나 대륙컵에 비해 낮은 단계의 대회지만 이번 대회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스키 강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한국 여자 선수가 유럽에서 열린 FIS 레이스 알파인 종목에서 입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영서는 “올해 하이원 스키장에 마련된 알파인 대표팀 전용 훈련장에서 연습한 것이 가장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서는 6일부터 이틀간 슬로바키아 야스나에서 열리는 2020-2021 FIS 월드컵 회전과 대회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3일 열린 국제스키연맹 레이스 오스트리아 대회 여자 회전 경기에서 준우승한 강영서. /연합뉴스

‘배추보이’ 이상호,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5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은메달리스트 이상호(26·하이원리조트)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에 올랐다.

이상호는 2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1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행회전 경기에서 출전 선수 57명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한국 스키의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순위는 2017년 3월 프리스타일 여자 듀얼 모굴 서지원(27)과 전남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 대회전 김상겸(32)의 4위다.

예선 6위로 16강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한 이상호는 16강에서 라도슬라프 안코프(불가리아)를 0.49초 차로 제치고 8강에 진출했다.

이상호는 그러나 준준결승에서 안드레아 프롬메거(오스트리아)에게 불과 0.04초 차로 패해 5위로 대회를 마쳤다.

강원도 사북 출신인 이상호는 초등학교 때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썰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타 ‘배추보이’라는 별명이 있는 선수다.

전날 평행 대회전에서 4위에 오른 김상겸은 평행 회전에서는 16위를 기록했다.



3일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행회전 경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26·하이원리조트)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부에 나간 장서희(19)는 51명 중 23위, 정해림(26)은 25위에 올랐다. 이정은(28)은 33위다.

남녀부 우승은 남자 카를 베나민(오스트리아), 여자 소피아 나디르시나(러시아)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미나리
- 2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 3관 미션 파서블
- 4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 5관 미나리
- 6관 미션 파서블
- 9관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7관 세세커플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소울
- 8관 세세커플 카오스 워킹, 통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